데스크탑

박 원 우
사회부장

'종북 좌빨'과 '꼴통 보수' 프레임의 오류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사태 덕분에 거의 10여년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정치 스펙트럼으로 새 정부의 스탠스를 굳이 따지자면 '좌'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반대편이랄 수 있는 '우'쪽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정치세력들은 이렇게 좌익성향과 우익성향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정치세력은 서로를 향해 '종북 좌빨'이라거나 '꼴통 보수'라는 낙인을 찍어 놓았다. 이분법적인 대결구도에서 만들어진 수식어로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지향성에 따라 진보나 보수로 나눌 수 있지만 굳이 이런 프레임을 짜 놓고 상대를 그 틀에 가두는 것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뒤틀어진 좌·우 진영 논리

하지만 이 프레임에는 매우 큰 오류가 담겨 있다. 우선 '좌' '우'로 나누는 진영 논리부터 문제다. 전 세계의 모든 우익은 민족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에너지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우익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강한 나라에 의지하는 '사대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현안인 통일에도 소극적이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일변도인 '매'파로 볼 수 있다. 그나마 경제 정책에서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는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것에서 우익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우익 성향의 정치세력을 모두 민족주의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좌, 우 진영논리로 정체성을 찾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또 좌익을 모두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도 황당한 논리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정치 스펙트럼으로 나눌때 왼쪽에 속한 정당들은 남북문제에 관해선 온건적인 '비둘기'파로 볼 수 있다. 극단적인 대결구도보다는 햇볕정책처럼 '회유책'으로 관계를 관리한다.

회유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갈리지만 어찌됐던 남북문제를 미, 중, 일, 러 등 강대국에 맡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해서 진보세력을 모두 좌익으로 나누고 거기에 '종북'이라는 붉은 색까지 덧칠해 버리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진영 논리가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까지 널리 퍼지고 점차 고착화돼 간다는데 있다.

이런 진영 프레임은 꽤 오래전부터 뒤틀려있었다. 일제의 부역자들이 광복후에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기득권세력으로 안착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직후 이들은 일제 부역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한국동란이후 '반공'을 방패삼아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자인 독립투사들을 모두 좌익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핍박하기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좌, 우로 나뉘게 되고 그 프레임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프레임 자체에 오류가 있지만 자신과 다른 정치 세력을 그 틀에 가두려는 시도 역시 계속 됐다.

진보-보수 건전한 경쟁하길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국민가운데 누가 이런 북한을 추종하며 '종북'행위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생부터 오류를 안고 있는 프레임에 상대를 가두려니 황당한 주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정치 진영 프레임이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좌, 우 진영은 확고해졌다.

우리 역사를 볼 때 특정 정당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국민의 자유가 항상 침해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정당 간 건전한 경쟁과 견제가 이뤄질 때 국민들은 편안했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개혁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가 서로 정책으로 경쟁하고 건전하게 견제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래본다.

사설

4대강, 문제 있다면 철저한 규명 옳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4대강 감사는 전 정권에서도 실시된 바 있으나 의혹들을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면 이번엔 철저히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대강 사업은 영산강 등 4대강에 16개 보와 96개 저수지를 만든 이명박 정부 최대 사업이다. 예산만 22조 원이 투입된 메머드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완료 뒤 치수 효과와 수질 악화라는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을 거듭해 왔다.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성이 커져온 셈이다.

사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두 차례 감사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감사를 했다. 그러나 앞선 감사는 수질관리 실태와 담합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만 보기엔 무리인 이유다.

초대형 국책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견제가 없었다는 점을 의아하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부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행정 절차가 생략됐다고 보는 듯 하다. 실제 그렇다면 감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된다. 경우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지적했든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사자와 동조자 모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정기획위, 국정 밑그림 잘 그려야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엊그제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은 만큼 국정기획위는 사실상 종래 인수위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정 목표와 비전 정립,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등을 잘 추슬러야 할 일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2일 현판식을 열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제 1차 전체회의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외교안보·정치행정·사회·경제 등 6개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기획위원회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화 5개년 계획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역할이 크고도 중요하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201개 공약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5년 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다듬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5개년 계획에는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와 부처 간 역할분담 등을 세부적으로 담아내야만 한다.

이같은 차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흐트러진 국정을 추스르는 것이 필수지만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당, 청과의 조화·협력을 통해 부문별 꼼꼼한 점검과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했다. 이에따라 정권을 이양받거나 국정을 추스릴 시간적인 여유가 빠듯하고 계획수립 기간도 부족했다. 따라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든다는 각오로 철저한 분석과 기획을 통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할 일이다.

기 고

미역을 먹는 어미고래 이야기

신경수
전 완도군보건의료원장
외과전문의

한자 '바다 해(海)'는 '어머니 모(母)'를 포함하고 있다.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 '氵'과 음을 나타내는 '每'(매→해)가 합해 이뤄진 형성문자로 '每(매)'는 '母(모)'와 같아서 애를 낳는 사람을 뜻한다.

1912년 울산 장생포에 와서 귀신고래를 연구한 앤드류스(Andrews)의 논문 속에는 '귀신고래 뱃속에 미역이 녹아 젤라틴이 돼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현재 전세계의 귀신고래 학자들도 귀신고래가 미역을 먹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 학자들도 고래는 미역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앤드류스는 '고래뱃속을 보니 미역(kelp)이 들어 있더라'고 명확히 적고 있다.

이보다 앞서 고 문헌에 바다 속에서 출산하는 어미고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당나라 때 서견이 지은 '초학기'에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 미역을 뜯어 먹어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인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 헌종 때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산부계곽변증설'에는 "어떤 사람이 헤엄치다 막 새끼를 낳은 고래에게 먹혀 뱃속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미역이 가득 붙어 있었으며 악혈이 모두 물로 변해 있었다. 고래 뱃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미역이 산후 조리하는 데 효험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학자들의 고래 관찰이 앤드류스보다 100년 이상 앞서 고래가 미역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고래 관찰에 머무르지 않고 고래의 섭생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운 슬기로운 민족이었다.

앤드류스는 단순하게 고래 뱃속에 미역이 녹아 젤라틴이 돼 있었다 정도였지만, 우리는 그 녹은 젤라틴을 보고, 악혈이 녹아서 물이 됐다는 사실과 산모에 좋다라는 임상학적 진단까지 내렸다.

미역(생것, 말린 것)에는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데, 가식부 100g에는 칼슘 920mg, 철 7.60mg, 엽산 1058ug과 다량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다. 또한 헤파린과 구조가 유사한 '후코이단(fucoidan)'이 0.3~0.5% 포함되어 있다.

산모들은 출산 후 대부분 미역국을 먹는다. 출산 후 먹는 미역의 효능으로는 지혈과 청혈, 빈혈예방, 자궁수축, 대사율 증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효능을 성분별로 보면 칼슘은 지혈과 근육수축의 생리학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풍부한 철분과 엽산은 빈혈을 예방한다. 요오드는 높은 대사율이 요구되는 산후조리 시기에 대사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후코이단은 혈액을 굳지 않게 해 피를 맑게 하는 혈전방지와 청혈효과가 있다.

물론 해조류를 통한 요오드의 과량 섭취는 갑상선기능항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먹는 미역국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5월은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바다 속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먹은 건 세상 밖으로 나온 새끼를 위해 빨리 몸을 회복하려는 어미고래의 몸짓이 아니었을까.

그 고래처럼 출산 후 미역을 먹었던 엄마들도 세상에 나온 아이를 위해 빨리 몸을 회복하려는 세상 밖에서 하는 아이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이 아니었을까. 5월이 지나기 전에 첫 번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님께 미역을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발행·편집인 崔永基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기사제보	(062)720-1050~56	사회2부	(062)720-1043~44	인쇄처 다원 인쇄
FAX	(062)720-1080~82	문체부	(062)720-1045	
논설실	(062)720-1032	전산팀	(062)720-1033	E-mail=jndn@chol.com
정치부	(062)720-1060~62	사진부	(062)720-1040	
경제부	(062)720-1065~67	광고국	(062)720-1017	
사회부	(062)720-1050~5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기자수첩

폭력에 노출된 의료인 대책 시급

심진석
사회부 기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휘두른 폭력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각종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의료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

얼마전 광주시의사회를 비롯해 광주시치과의사회·광주시한의사회·광주시약사회·광주시간호사회 등 지역 의료 단체들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광주 동구 한 치과병원에서 40대 남성이 치료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여 의사를 칼로 찌르는 사건과 관련, 법원에서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형량이 낮을 경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병원에서의 폭력은 경중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술에 만취해 병원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를 상대로 한 각종 성희롱, 진료중인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의료관계자들은 사건화되지 않고 덮어지는 의료현장 폭력사건이 한달 평균 2~3건씩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진들의 안전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이다.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료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 하나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원경찰이나 경비인력이 준비된 대형 병원이야 그런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세한 지역 중소형 병원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다. 경찰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해진 것이다.

사진 속 세상

화마를 이겨낸 새싹

지난 6일 산불이 발생해 잿더미가 된 강원 강릉시 성산면의 산림에서 23일 푸른 희망의 싹이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독자광장

공원 내에 음주가무 이제 그만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원 내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쉼터의 장소가 아닌 폭력과 소음이 가득한 우범지역이 돼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근린공원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가 오가고 성인들끼리 다투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혹여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공원에서의 음주소란 같은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실제로 단속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동네 공원의 경우 밝은 조명등 설치와 적극적인 순찰로 모두가 쉴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도록 하자.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박형준

민원·생활불편 제보 ☎720-1050 • 팩스 : (062) 720-1080~82 • 이메일 : jndn@chol.com

머@세상

■ 중대장과 소대장

어느부대에 고만고만한 중대장과 소대장이 있었다.

어느 날 적들이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란 소대장이 급히 보고를 했다.

"중대장님! 전방 300m 앞에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하죠?"

성질 급한 중대장이 말했다.

"야 빨리 대포를 쏘면 돼잖아!"

"우리 대포는 100m밖에 안날라가는데요~?"

화가난 중대장이 고함을 질렀다.

"야. 넌 장교가 돼서 짬밥은 헛 먹었냐? 대포를 연달아 세번 쏘면 돼잖아!"

그러자 그 소대장은 탐탁지 않는 듯 머리를 긁었다.

"야. 김일병 대포 3발만 빨리 장전해."

■ 집들이

10년 만에 집을 장만한 남자가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한 친구에게 집안을 구석구석 안내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당 구석에 있는 큰 개집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친구가 물었다.

"자네가 개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걸? 그런데 개는 어디 있나?"

그러자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던 남자가 말했다.

"개라니. 저건 내가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 마누라가 문을 안 열어주면 임시로 사용하는 내 방이라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3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3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